

러시아 거시·실물 경제 최근 동향

1. 경제성장률, 산업생산 동향 등

□ 2009년 러시아 실질경제성장률 전년 대비 -7.9%(잠정치) 기록

○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경기 침체 여파로 2009년 상반기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1분기 국제유가의 상승 반전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러시아 통계청(Rosstat)은 2009년 러시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잠정적으로 전년 대비 -7.9%를 기록하였다고 밝혔으며(2월 2일), Arkady Dvorkovich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09년 4분기에 3% 이상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언급함.

<표 1> 러시아의 2009년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 분	'06	'07	'08	'09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경제성장률	7.4	8.1	5.6	-7.9*	-9.8	-10.9	-8.9	3.0*

주: *는 잠정치

자료: RosStat, EIU.

- 글로벌 경기후퇴, 유가·가스 등 국제 원자재상품 가격폭락, 해외로의 자본유출 가속화, 금융시장 불안 및 급격한 내수수요 감소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1분기(-9.8%), 2분기(-10.9%)에 경제활동이 급격히 감소함(2000년대 들어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 시현).

- 1분기에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안정적인 국제유가 추세(배럴당 70~80달러), 세계경기 회복세 등 우호적인 대외환경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기준금리 인하 등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금융시장 리스크 감소에 힘입어 11월 이후에는 GDP 성장률, 산업생산성장률 등의 경제지표도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2010년 러시아의 경제성장 전망치 : 3~4%대

- 러시아 경제개발부: 2010년 3.1%('09.12월 발표), 3.4%(2011년), 4.2%(2012년)
- 국제기구: IMF 3.6%('10.1월), World Bank 3.2%('09.11월), OECD 4.9%('09.11월), EBRD 3.5~4%('10.1월)
- IMF는 러시아에 대한 성장 전망을 종전 1.5%에서 최근 3.6%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국제기구의 러시아에 대한 성장전망을 상향 조정함.

□ 12월 산업생산, 전년 대비 2.7% 성장

-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09년 12월 산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2.7% 성장하면서 1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월별 기준으로는 11월의 플러스 성장률(전월 대비 2% 증가)을 이어가며 전월 대비 5% 증가함.
- 부문별로는 전년 대비 광업 4.9%, 제조업 0.7%, 유틸리티 4.5% 성장
- '09년 연간 기준 산업생산성장률은 전년 대비 10.8% 감소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광업 -0.2%, 제조업 -16%, 유틸리티 -4.8%를 기록함.¹⁾
- 건설, 교통·수송 부문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매유통 부문은 여전히 부진함.

1) '08년 2.1%, '07년 6.3%

- 12월 건설부문 성장률은 전년 대비 -6.2%를 기록하였으나, 11월 (-13.2%)보다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수송 부문은 파이프라인(전년 대비 4.7%), 철도수송(전년 대비 8.6%)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6.4% 성장함.
- 그러나 소매유통부문의 경우 12월에도 전년 대비 3.6% 감소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회복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2> 러시아의 2009년 상반기 기초산업부문 성장률

단위: %

구분	'08	'09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업생산	2.1	-10.8	-16.0	-13.2	-13.7	-16.9	-17.1	-12.1	-10.8	-12.6	-9.5	-11.2	1.5	2.7
건설업	12.8	-16.0	-16.8	-20.7	-20.2	-16.3	-21.9	-19.6	-17.8	-15.5	-18.3	-14.5	-13.2	-6.2
교통수송	-12.4	-10.2	-14.7	-19.1	-16.9	-21.4	-18.8	-16.1	-7.8	-6.9	-6.3	-5.8	5.1	6.4
소매유통	4.8	-5.5	2.4	-2.4	-4.0	-4.5	-5.6	-6.5	-8.3	-9.8	-9.9	-8.5	-6.4	-3.6
농업	4.5	1.2	2.6	2.2	1.7	0.5	0.2	0.2	-1.3	-12.6	6.7	4.8	5.6	6.9

주: 전년동기 대비
자료: RosStat, CEIC.

□ 10월 이후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세 지속

- 12월 실질가처분소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7.6% 기록하였으며, 실질임금도 12월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됨.
- 12월 평균명목임금은 23,827루블(약 786달러)로 11월의 19,174루블보다 증가하였으며, '09년 연간 평균명목임금은 18,785루블을 기록함.

<표3> 러시아의 2009년 임금소득 증가율

단위: %

구 분	'08	'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질가처분소득	2.7	-6.6	-4.7	-0.1	-0.1	-2.3	-1.0	-5.4	-7.8	-4.9	3.9	1.9	7.6
명 목 임 금	25.2	3.0	13.9	7.5	9.8	8.6	6.1	5.2	5.4	4.9	4.8	8.4	9.4
실 질 임 금	9.7	-9.1	0.1	-5.7	-3.0	-3.4	-5.2	-5.8	-5.6	-5.2	-4.5	-0.7	0.6

주: 전년동기 대비

자료: RosStat, CEIC.

□ '09년 4월 이후 실업률 다소 감소 추세

-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러시아의 12월 실업률 및 실업자 수는 11월 (각각 8.1% 및 610만 명)보다 다소 증가한 8.2%, 620만 명을 기록함.
 - '09년 상반기에 국제노동기구(ILO)는 '09년 러시아의 실업률이 1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09년 중 러시아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효과로 고용상황이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실업률 상승은 여전히 러시아 경제회복 지연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2. 물가

□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 대비 8.8% 상승

- 러시아통계청에 따르면 '09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보다 8.8% 상승(11월 8.4%)하였으며, 이는 금융위기 이전 두 자릿수의 높은 물가상승률 대비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러시아 경제개발부 및 중앙은행은 '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 미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9.5% 증가

-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09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9.5% 증가(전월 대비 0.5% 증가)

3. 재정수지, 외환보유액 및 외채

□ 2009년 재정적자 GDP의 5.9% 기록

- GDP 대비 재정적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로 인해 최근 정부 목표치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 Alexei Kudrin 재무부장은 '2009년 러시아의 재정수지는 재정수입 7조 3,700억 루블, 재정지출 9조 6,600억 루블로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5.9%인 2조 3,260억 루블을 기록했다'고 밝힘.

- 그러나 은행권 구제금융(1,790억 루블) 및 중소기업 지원금융(300억 루블)을 포함할 경우 GDP의 6.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정부 목표치인 6.9%보다 낮은 수준임.

□ 2009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 4,390억 달러 기록

- '08년 금융위기 이전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외환보유액(5,966억 달러, 2008. 8월말)은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인 루블화 환율방어 및 해외로의 대규모 자본유출로 인해 '09. 4월 3,839억 달러까지 감소함.

- '09. 4월 이후 유가 상승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09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4,390억 달러를 기록함.

- '10. 1. 22일 기준 외환보유액은 외국통화 3,989억 달러, 금 보유액 224억 달러, IMF SDR 19억 달러, 기타 70억 달러 등 총 4,356억 달러임.

-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09. 12월 말 기준 적립기금(Reserve Fund)은 1조 8,310억 루블이며 '10년 말까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전액 사용될 것으로 알려짐.

□ 2009년 말 기준 총외채 규모 4,697억 달러(잠정치) 기록

- 중앙은행 잠정치에 따르면 총외채 규모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4,697억 달러 수준임.
- 정부 대외채무액은 300억 달러(전년 대비 1.7% 증가)로 외채비중이 낮은 편이나, 은행권 1,256억 달러(총외채 26.7%, 전년 대비 24.7% 감소), 기업 등 기타부문 2,998억 달러(총외채 63.8%, 전년 대비 6% 증가)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발행액은 '09년 말 기준 1조 8,370억 루블(620억 달러)로 전년(1조 4,210억 루블)보다 29.3% 증가함.

4. 경상수지 및 상품수지

□ 2009년 경상수지 흑자규모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상품수지 감소로 인해 '09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상반기 173억 달러보다 증가한 475억 달러로 전년(1,023억 달러)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함.
- 상품수지 흑자 1,110억 달러('08년 1,800억 달러 흑자), 서비스수지 적자 250억 달러('08년 198억 달러 적자), 투자수지 흑자 70억 달러('08년 350억 달러 적자), 자본수지 적자 133억 달러('08년 1,4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5. 기타

□ Fitch, 러시아 국가신용등급 전망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

- '10년 1월, 국제신용평가사인 Fitch는 유가상승 및 최근의 긍정적인 경제기조 등을 고려하여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
- 상향 조정에는 유가 상승, 최근 경제회복세, 민간부문으로의 자본유입, 소비자물가상승률 하향추세, 은행부문 리스크 감소, 예상치보다 낮은 '09년 재정적자 규모 등 경제 및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경제기조가 반영됨.
- 그러나 연체여신 및 채무조정을 포함한 은행권의 무수익여신(NPLs) 규모가 '10년에 25%('09. 10월 기준 1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은행권의 대출기피로 인해 더딘 소비수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모스크바 사무소】